

완전복음을 향한 전도자의 삶

-복음으로 여는 야고보서-

창세기 22:11-13, 야고보서 2:21

정윤돈 목사님

* **창22:11-13**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약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 말씀성취의 주역이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문성,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간이고 총회주간이다. 우리가 특별한 교단을 만든 게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를 따르며 칼빈과 루터가 갖춘 신학체계를 따르고 있다. 장로교 개혁주의신학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교단이다. 루터와 칼빈은 로마카톨릭에서 개혁하며, 계속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또 교권주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하되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역자, 램넌트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어려움과 문제가 올수록 복음중심, 성경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왔을 때 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야고보서에서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헌신이 뭔지도 모른다.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 나와 선교가 관계없으면 돈 걱정을 하게 된다. 내 방향을 선교로 맞춰야 한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더 잘 안다. 불신자가 ‘믿음 좋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삶에서 선함과 정직함이 나타났다는 말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음이 나타나는 증거다. 안 나타나도 구원은 받는다. 믿음도 여러 가지다. 구원의 믿음과 고난 속에서 이기는 믿음이 다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이 다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실천적 믿음이 다르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보여 지는지에 대해 말해 준다. 제가 운동하다가 다치면 의사선생님이 ‘가장 아픈 게 10이라면 지금 몇 정도 아프냐고 물어본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10점 중에 몇 점인가.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면 너무 높은 걸 생각하기보다는 낮은 믿음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다. 반면에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차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이 얼마나 내게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달라진다. 문제와 갈등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리스도, 전도, 선교,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있는 순종’을 뛰어넘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바치려 하였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라면 백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 법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복종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본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게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던 것처럼 독자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믿음을 보여준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확실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너무 축복이다. 하나님은 또 숫양을 준비하셨다. 숫양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복음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행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이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었다. 세상을 살아가며 윤리, 도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갱신해야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신다. 솔로몬도 자신이 제일 지혜로운 것처럼 잠언서를 썼지만 나중에는 넘어지고 마지막에 전도서를 쓴다. 루터와 칼빈, 우리가 어거스틴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거스틴도 마지막에 참회록을 쓰고 죽는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이 있다. 다윗도 실수를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책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는다. 불만을 갖기 보다는 개혁하는 중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젓동생, 형제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 예루살렘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보았다. 어려서는 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달랐던 것이다. 공생애 모습과 부활과 승천 이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은혜로 깨달았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나의 주인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십자가는 죄를 저 사람이 졌는데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면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고 정죄하면 현상이 지옥이 된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들을 가진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갖추어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 야고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스도인의 성전예식을 보면서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또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며 반역자가 되기도 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듯 오해와 핍박이 많았지만 결국 로마를 정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지 남들의 핍박과 괴롭힘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평생 갱신하고 개혁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살리는 길이 보여야지 나의 죄, 남의 죄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절대목표가 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그게 굉장히 보완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다.

1.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메시지를 먼저 알아보겠다.

(1)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이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다. 초대교회는 장로를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면서 목사를 감시하라고 세웠다. 저는 그래서 당회를 다 거치고 보고하려고 한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장로님들이 조언하고 의논해서 갱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온

전히 지켜져 나간다.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갱신하고 개혁해야겠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불신자가 보더라도 믿음이 갖추어져야 한다. 신앙은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믿음의 절대목표와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마약, 알코올중독자가 '이걸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넘어지지만 고칠 생각과 갱신할 생각조차도 없으면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진도와 선교에 정말 방향이 맞아있는가? 방향을 맞추면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2) 시험과 인내이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처럼 고난을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말해준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 후대를 위해서 한다면 다 상급으로 쌓인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에 대해 모델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태가 영적서밋의 상태다.

(3) 야고보서는 말의 힘과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한다.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말의 사용에 있어 절제와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말이 사람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저는 정말 해야 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말하고 나면 결국 후회하더라. 반면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 안 했을 때 나중에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다. 화가 나고 생각이 많고 내 기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생각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

(4) 부와 가난에 대한 교훈이다.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볼 것을 권장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시에는 교회에 로마시민권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서민도 있었다.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심했다. 야고보는 차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

(5) 야고보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강조한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한다.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을 때 감추는데, 아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탄은 감추게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은 더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자랑해라.

2. 야고보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된 성도들의 절대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다. 지금 세상에 대충복음, 섞인복음, 다른복음, 틀린복음, 이용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우리는 원색복음, 오직복음을 넘어 완전복음을 추구한다. 완전복음이 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 수학에서도 검증을 하듯이 내게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내게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았구나'하고 믿음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더 겸손하게 성경과 복음중심으로 가야 한다. 판단하지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한다.

(2)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큰 부자는 큰 빛이 있다.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응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바란다.

(3)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이고 생명과 영생, 복음의 말씀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창조주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 영혼상태가 바뀐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을 붙잡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주역으로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를 바란다.

(4)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기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보여주면 흑암이 꺾인다.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마귀를 시험에 빠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지 험기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핵심이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적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말 믿는 게 아닐 수 있다. 내게 예수님이 주인 되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주인되어야 감사의 여정을 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강조해서 말한다. 성도들은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도와 선교에 맞아야 한다. 성도들은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역사할 때 ② 열 가지 비밀이 '독립'부터 시작해서 '영적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까지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온다. ③ 그리고 신앙의 발판 열 가지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의 현장은 선교지, 생사회복의 주권,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심판, 전도자의 상급이다. ④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다. 모든 길 정말 기도하면서 해라. 정말 예배에 집중해도 응답받는다. 꼭 좋은 대학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다. 방향이 맞아야 한다. 숙제 안 해도 되지만 '숙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야 한다. 방향을 맞추고 하려고 하는데 못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방향도 맞추지 않고 노력도 안 하면서 90점 나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 자제가 중요하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⑤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홉 가지 흐름이다.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열, 과거, 현재, 미래다. 하나님과 학문도 깊게 연구하고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리더자가 될 수 있다. ⑥ 그리고 62가지 삶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시스템이다. 그런 사역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⑦ 그리고 결국 교회를 살려야 한다. 마귀입장에서 가장 기본 나쁜 조직이 교회다. 많은 교회 중에서도 237까지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교단일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중간 사역자들은 연약한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라. 끝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후대들이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